

화순, 미래 성장 동력산업 발굴 박차

신규 시책 보고회...사업 추진 방향 논의 지역균형 뉴딜·기후 위기·SOC 등 130건

화순군이 코로나 이후 시대 대응, SOC 사업, 미래 성장 동력산업 등 내년도 신규 시책 사업 130건을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최근 '2022년 신규 시책 보고회'를 열고 사업 타당성,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보고회에서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사업, 지역균형 뉴딜, 기후 위기, 지역 생활밀착형 SOC 사업, 각종 공모 사업과 연계한 시책 발굴을 목표로 총 130개 사업이 보고됐다.

화순의 미래먹거리 산업인 K-바이오 분야는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캠퍼스 ▲팜타이드 기반 난치성 내성암 치료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소상공인 화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영세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역량 강화 교육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

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시책이 제안됐다. 코로나 이후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관광 분야는 화순관광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해 비대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세라지 공원 조성, 사평역 테마 관광자원화, 화순 트리빌리지 조성 등을 추진, 힐링·체류형 관광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농업분야에서는 ▲친환경 무농약 생산단지 지원 사업 ▲병해충 방제용 드론 공급 ▲수산물 클러스터 내 유통부지 꽃 단지 조성 사업을, 복지·안전 분야에서는 ▲무연고 사회보장급여 대상 자격변동서비스 안내 운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심동행 서비스 ▲화순군 재난상황 관리 스마트 드론 구축 ▲스마트 시티 안전망서비스 구축 사업 등이 검토됐다.

동북담 관련 신규 시책으로 ▲동북담 주변지역 정비사업 ▲화순적벽 관광명소화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동북호 유역마을 하수도 신설사업



화순군이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2022년 신규 시책 보고회를 열고 사업 타당성과 추진 전략을 모색했다. /화순군 제공

▲담하루지역 재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세외수입 메타버스 사무실 ▲주·정차단속 사전 문자 알림시스템 구축 ▲'화순군 차량등록 서비스' 카카오톡 채널 운영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사업 등 제각각 높은 생활시책도 다수 발굴됐다.

구정군 화순군수는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과 지역 경제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발굴한 사업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효과로 나타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 준비와 대비 확보 방안 등을 꼼꼼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은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완성도를 높이고 소요예산의 적정성과 추진계획 등을 추가 검토해 타당성이 높은 시책은 2022년 예산에 반영하고 국비 확보활동 등 시책 추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화순=이종백 기자

장성 노란꽃장터 내달 운영 농가 재배 농·특산물 판매

신선한 장성 농산물과 각종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황룡강 노란꽃장터가 오는 10월부터 한 달 동안 문을 연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장소는 황룡강 생태공원 주차장이다.

노란꽃장터는 지역 농가가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다. 장성군귀농귀촌협의회와 장성유통사업단, 산체협동조합 등이 참여해 민·관 협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도 꾸준한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황룡강의 관광수요를 농산물 판로 확대에 연계시킨 점이 주목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최초로 문을 열었던 올해 상반기에는 5주 동안 약 4,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노란꽃장터에서는 사과와 포도,



장성 황룡강 노란꽃장터 모습. /장성군 제공

대추 등 제철 과일을 비롯해 견과류, 꿀, 토마토 등 다양한 상품들을 풍성하게 만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0억 송이의 가을꽃이 황룡강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어, 보다 많은 고객이 노란꽃장터를 찾을 것으로 예

상된다"면서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 '2021년 정례형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공모에 황룡강 노란꽃장터와 장성호 수변길마켓이 나란히 사업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며, 올해 초 직거래장터를 개장했다.

전남지역 사업지 3개소 가운데 두 곳을 확보한 장성군은 3년 연속 선정 기록도 남겼다. /장성=전일용 기자

특허·지적재산권 확보·산업체 지원 등 장흥 버섯산업 성과 한 자리에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립 허가 15주년을 맞아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 주요 성과 보고회를 가졌다.

첫 보고회는 최근 정중순 장흥군수와 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22일 열린 두번째 보고회는 장흥군의회 이상호 의장 및 군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보고회에서는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의 최근 15년간 연구 성과와 지역 특화자원의 육성 실적을 되돌아보고, 향후 5년간의 발전 전략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은 지금까지 65건의 연구사업(총 81억 원)을 추진해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 83건 ▲산업체 지원 30건 ▲기술 이전 8건 ▲논문 등 학술발표 110여 건 등을 달성했다.

특히 올해에는 8년간의 연구 과정을 통해 개발한 지역특화 표고버섯 신 품종 5종을 품종 출원해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령, 목이, 동충하초, 운지 등 신소득 약용버섯을 지속 발굴해 재배

단지를 육성하고 있으며, 재배 환경의 선진화를 위해 원목표고 자동 집종시스템과 스마트팜 재배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정중순 군수는 "군 특화자원인 버섯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무척 중요하다"며 "2030 전남 천연물산업 종합발전 계획과 더불어 군에서 추진 중인 진균류 바이오헬스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버섯을 활용한 R&D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의회 이상호 의장은 "장흥군이 건표고 주산지인 만큼 농가와 산업을 위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농가와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은 8년간의 연구 과정을 거쳐 개발된 표고버섯 신품종에 대한 명칭 공모전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출품 명칭은 대상 1명(100만 원), 금상 1명(70만 원), 은상 1명(50만 원), 동상 2명(30만 원)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지급한다.

/장흥=이옥현 기자

함평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선두주자'

연간 1,500여 건 이상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전군 잔류농약 분석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사진)

함평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2016년 개원 이래, 연간 1,500여 건 이상 지역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이러한 분석능력을 토대로 전남도 22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 유일하게 GAP·친환경 인증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 성적서를 발행하고 있다.

올해는 관련 조례·규칙 재개정을 통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뿐만 아니라 중금속·수질(하천·호소수), 시설재배양액원수 등 분석 항목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관련 전문인력의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국제속련도평가(FAPAS)에 연간 2회 참여하고 있으며, 실험실 간 교차검증 등을 통해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유해물질 검사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는 물론, 분석실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이를 벤치마킹하려는 타 지자체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의 군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통해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준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나주 반남면 의용소방대, 안전지킴이 활동

나주시 반남면 의용소방대(대장 최기선)가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활동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나주시 반남면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석호) 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단은 최근 홀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20가구에 주택용 화재감

지기, 소화기를 설치했다. 화재감지기는 화재 발생 때 경보가 작동해 초기에 인지,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장치다.

안전지킴이들은 장치 설치와 더불어 주택 내부 발화물질 방지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에게 사용법을 안내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담양 명품딸기 생산농가 안내판 설치

담양군이 딸기생산농가를 찾는 방문객과 농가의 편의를 위해 최근 봉산면 와우리에 '딸기생산농가 안내판'을 설치했다.

봉산면 와우리는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아 딸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딸기 재배 하우스로 이뤄져 있어 생산 농가를 찾아 방문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봉산면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마을뜯넉안내판 설치사업 예산을 배정받아 와우딸기작목회, 봉산면주민자치회와 함께 안내판 제작에 참여해 와우마을 입구에 설치했다.

안내판은 딸기생산농가의 작업장 위치를 농가 이름으로 표시함으로써 방문객이 농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담양=정일남 기자



전남학숙 구내식당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도립전남학숙이 최근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인증 기관으로 지정돼 현판식을 가졌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세대한민국김치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민국의식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가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

는 업소로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도립전남학숙 구내식당은 전남도에 서 생산·가공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 사용은 물론 국내산 우리콩으로 된 장·간장을 담아 맛있고 정성 가득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김석원 관장은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지정으로 향후 김장제형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순=이종백 기자